| 현불 논단 |

코인 광풍엔 '황금 동아줄' 없다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가상화폐 증후군 확대일로
마음 흔드는 격랑 · 바람 같아

서산 스님 〈선가귀감〉서
8가지 마음 경계 주의 전해
세상 보는 '삼법인' 알아야

기술 변화 관심만큼 자신 살펴
바람에 흔들리는 마음 잡고
증후군 파도 건너 정상 삶 살자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광풍으로 인해 새로운 증후군들이 확대 · 재생산되고 있다.

먼저 '포모 증후군(FOMO, fear of missing out)'의 경우를 보면, '유행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고립공포 경향성이 진폭 큰 변동장세와 맞물려 태풍급으로 진화하여 코인 분야의 포모증후군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번 흐름에 타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되어 서로 사거나 팔면서 더 큰 가격 변동을 이루어낸 것이다.

'코인우울증'의 경우는 가상화폐 열풍으로 손쉽게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여 우울감이 증폭되면서 나타난 증상이다.

"나는 하루 종일 일해도 빠듯하게 사는데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하루 만에 몇 백, 몇 천을 벌다니…"

이런 생각은 질투심과 허탈감을 동반하고 마음을 몸살나게 한다. 서산 스님은 〈선가귀감〉을 통해 마음을 흔드는 8가지 바람을 일러주고 있다. 8가지 경계가 나타나면 조심하라는 것이다.

조심해야할 첫 번째 바람은 '이(利)'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마음에 바람이 든다는 것이다. 투자할 때는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앞선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손해를 보게 되면 견딜 수가 없다. 이를 '쇠(衰)'라고 하고 '쇠망'이라고도 한다. 이 때도 마음은 바람을 맞는다.

변동 폭이 크게 되면 바람의 세기와 함께 마음의 진폭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자기 안에 다양한 자아들이 등장하여 서로 다투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 간다. 그러다 보면 진흙탕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세상을 바로 보게 하는 눈인 삼법인의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이다. 세상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진정한 흐름의 선구자이다. 새로운 블록체인의 기술의 중요성은 투자와 관심의 확대로 증명되고 있다. 그런 변화와 함께할 때 많은 환호와 격려가 동반된다.

삼법인의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이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의 뒤만 쫓다보면 허망한 결과로 마음만 상하게 된다.

남이 한다고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면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광풍에 휩쓸려도 알아차리면 멈출 수 있게 되고 멈추면 새로운 길이 보여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통증은 문제되는 부위를 알려주는 무의식의 선물이고 통증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데 있다고 한다. 지금 아프다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나침반으로 쓰면 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지혜롭게 준비하면 된다.

삼법인의 세 번째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이다. 화폐의 개념을 포함한 모든 개념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새롭게 정의되는 어떤 개념에도 넋을 잃을 일이 없게 된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시 보는 '낯설게 하기'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게 된다. 새롭지 않은 순간은 단 한 번도 없기에 이제는 정체를 직시하고 중심에서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30용 황금 동아줄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파격은 가상의 허공 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법의 표식이다. 법의 표식은 바람에 흔들이는 마음을 오뚜기처럼 세워 모든 세상의 증후군 파도를 건너 우리 삶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만든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영화 '신과 함께'는 불교영화인가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이하 신과 함께)'의 흥행 열풍이 뜨겁다. 지난해 12월 20일에 개봉하고 해를 넘어서까지 흥행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1월 18일 현재 '신과 함께'는 1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박스오피스 5위 자리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신과 함께'는 대만, 홍콩 박스오피스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제12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 후보에도 오르는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이 영화의 큰 장점은 동아시아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동양적 지옥 세계관에 특유의 효(孝) 사상을 추가한 것이다. 물의 없이 볼 수 있고, 감정도 빠르게 이입된다. 거기에 현란한 CG들은 지겨울 틈 없이 채워지며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불교계도 '신과 함께'의 흥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SNS나 불교 언론들에서 연일 "'신과 함께' 흥행의 바탕에 불교가 있다"며 띄우고 있다. 일편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자. 영화 '신과 함께'는 과연 불교영화인가. 영화 '신과 함께'는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다. 불교 군종병 출신의 주호민 작가가 만들어낸 원작 '신과 함께'는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으로 나뉜다. 이 중 저승편이 현재의 영화에 해당된다. 3부작 중에서도 저승편은 불교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변용시켜 많은 눈길을 끌었다. 저승가는 열차부터 지옥들을 통과하는 방법까지 작가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장보살의 존재였다. 지장보살은 주지하다시피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불에게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을 서두르지 않겠나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중생이 모두 제도되면 깨달음을 이루리라"라고 거룩하며 숭고한 서원을 다짐했다.

원작 웹툰에서는 지옥이 커져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려워지자 지장보살은 변호사를 배출하기 시작한다. 여러 시왕들 앞에서 주인공을 변호한 진기한은 지장보살이 배출한 변호사였다. 어찌보면 지장보살의 화신(化身)이라 볼 수 있다. 지장보살과 진기한은 '신과 함께-저승편'과 불교적 저승 세계관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변호사 진기한이 사라졌다. 구원의 존재로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던 지장보살이 없어진 것이다. 애초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산스크리트어 '나라카(naraka)'서 유래하며, 불교와 함께 중국에 수입돼 도교의 명계관과 만나 시왕사상이 됐다. 다시 말해 불교와 도교가 습합된 세계관인 것이다.

'인과응보' 역시 지옥 개념이 도입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개념이기도 하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살고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준 지장보살은 없어지고 비어버린 자리에는 효로 포장된 '신파'가 채웠다. 그래서인지 마지막까지 '울어, 울란 말이다' 하며 밀어붙이는 전개는 일편 거북하다.

원작의 매력은 불교적인 세계관이 구현된 지옥세계와 한국 전통 민속문화들을 현대적으로 재기발랄하게 재해석하는 점이었다. 또한 이야기꾼으로서 작가의 역량도 매우 뛰어났다.

하지만, 영화 '신과 함께'는 어떤가. 화려한 CG는 원작이 준 매력들을 대신 해주는 못하며 불교적 세계관은 반쪽이 됐다. 정확하게 영화 '신과 함께'는 불교영화가 아니다. '불교적 세계관을 잘 구축했던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社 說

조계종 승가교육 개편에 부쳐

조계종이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 · 구족계 수지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다시 한번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에 들어간다고 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서 올해 사업 기조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제시된 개편 과제는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 △교수 및 연구자 적정수 유지책 마련 △승가대학 축소에 따른 교수스님 새 역할 부여 △기본교육과정 학제 조정 및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 등이다.

사실 이들 과제는 출가자 급감에 따른 고육책이다. 최근 2년 사이에 연간 출가자 수가 150명대로 감소됐으며, 올해에는 120명 수준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18곳의 기본교육기관들은 학인 스님이 매번 모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승가대학 전체 학인이 6~9명인 곳도 상당수다. 학생이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인력과 재정의 낭비이기도 하다.

일선 현장의 스님들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서로 공감했던 문제였지만, 결국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만 남았다고 말한 교수 스님도 있었다.

궁극적으로 종단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전통에 부합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출가 문화를 정립하고, 현 승가교육 시스템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 교수스님들과 면밀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 논의들은 문중, 사찰의 이해관계가 아닌 종단의 대계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 성공적인 승가교육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눈물의 KTX투쟁, 행복으로 끝나길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던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가 불교계의 노력으로 10년만에 해결됐다. 대전지방법원이 16일 철도공사가 KTX해고여승무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서 원금의 5%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낸 것이다.

지상의 스튜어디스를 꿈꾸며 2004년 KTX개통을 앞두고 입사한 여승무원들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2008년 해고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벌여 매달 임금을 받았지만 2012년 사측의 가처분으로 임금 지급 중단됐고, 4년간 임금이 대법원 패소로 빚으로 남았던 것이다.

이번 조정을 통해 여승무원들의 해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15년 대법원이 코레일 승소를 통해 해고된 여승무원들을 코레일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고, 이번 조정은 당시 해고 이후 지불한 임금을 환수가 가혹하다는 여론에 일부 경감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코레일은 복직 등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많은 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비정규직들이 거리에 있다. 이런 소외계층의 아픔을 보듬는 일이 불교의 역할이 아닐까.

KTX 해고 여승무원 환수금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사회 많은 이들은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들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쉬운 인생은 없다며 부당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당당히 맞서고 노력하는 이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교계는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탈종 및 탈종 정정 공고

- 사찰명 : 정혜사
- 주 지 : 도경(안영근)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145-13

상기인 사찰의 2018.01.05 탈종공고는 무효이므로 정정함과 동시에 한국호국불교 조계종을 탈종하고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사찰로 존속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태광사
- 주 소 : 강원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95-13
- 법 명 : 석존 (심원구)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법하